

“이기심 버리고 봉사에 임하길”

‘2004년 동남 인터랙트클럽 평가회’



동남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은 지난 18일 학교 2층 독서실에서 2004년 동남 인터랙트클럽 평가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동남고등학교 2층 독서실에서 로타리클럽 관계자와 교사 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동남 인터랙트클럽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남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 회장인 고수경 학생의 개회 선언 및 타종으로 시작하여 2005년도 차기임원소개 및 2004년도 인터랙트 활동내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남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은 '가나인의 집', '버라이어의 집', '자해원' 등의 복지시설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가져왔으며, 수화교육 및 자원봉사대축제와 인터랙트 지

구대회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단체로 활동해 왔다.

정익식(동남고 3년) 동남인터랙트클럽 직전 회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고등학교 생활에 부여된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해 가입했으나 시각장애인을 돕고, 치매노인을 씻겨드리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참다운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밝혔다.

동남 인터랙트클럽은 지난 2003년 창립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2명을 일본에 해외교환학생으로 파견해 홈스테이 등 국제봉사 단체로서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동남고등학교 조대행 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기심을 버리고 기본적인 마음을 바르게 하여 봉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공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1318 우리를 말한다 A

“스쿨버스에서 동생들이 먼저 내리도록 해요”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친구나 후배들이 축구나 농구를 하고 나면 공을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공을 제자리에 넣어두곤 해요”
화현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 김대웅 군(11.사진)이 어린이회장이자로서 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김 군은 또 화현초등학교에 대해서 “공기 좋고 깨끗하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 좋고 원어인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미술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라고 말한다.

화현초등학교는 소규모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특기적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원어인 교사의 영어교육과 미술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김 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 군의 하루일과는 아침에 일어나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면 아침저녁과 수업시간에 참여하는데 영어와 미술을



김대웅
화현초교 전교어린이회장

공부한다. 이어 일동승진아파트 공부방에서 공부를 더 하고 있다.

올해 6학년으로서 내년에 포천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김 군에게는 장래희망이 있다. 멋진 소방관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용소방대원으로 너무 멋있기 때문이다.

스쿨버스에서도 늘 어린이어

들부터 내려주는 김 군에게는 봉사활동이 푼에 배어 있다.

다음에 전교어린이회장이게도 봉사하는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 군에게서 참봉사가 구현되는 미래상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화현초등학교가 추진중인 특기적성교육 미술을 배운 김 군은 미술시범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표현력보다는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자 김 군의 모습이 다음세대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군은 부모님에 대해 “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풍경이 있는 학교에 큰 예산을 투입해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참봉사가 되었다고 다짐하는 화현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 김대웅 군의 모습이 유난히 밝게 보인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14)

너, 별똥별 먹어봤니

조성구 선생님은 1학년과 3학년 두 번에 걸쳐 나의 담임 선생님이셨고, 동생의 2학년 담임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4학년 이구요.

질은 눈썹에 얼굴의 윤곽이 뚜렷한 선생님은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개성 또한 뚜렷하여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지요.

선생님은 땅거미가 누워있을 때 찾아 오셨습니다.

큰 산 국립공원(해발 1168M) 줄기의 방아골 밑에 살고 있는 화전민의 아들 민창기가 일주일째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그 아이의 집에 다녀오셨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자치기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창기네 집이 그렇게 먼 줄 모르시고 오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동네가 심리나 되는데 또 창기네 집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창기네 집은 멀기도 할 뿐 아니라, 큰 산 밑에 있는지라 어둡기 시작하는 그 시각에는 도저히 그 곳을 다녀와 학교가 있는 면 소재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와 제환이, 창채 등, 몇 명에서 함께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택 내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어리고 어둠을 뚫고 그곳을 다녀올 만한 답력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진짜 가기가 정말 싫

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를 습격한 2.21 사태의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능선이라는 데 간첩 나올까봐 아이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다녀오시겠노라 시며 이웃 군인 가족 집에서 기(기역자)자 군용 플래시를 빌리고 담배를 몇 대 챙겨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저는 잠들어 있었으며,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무서움에 땀이 흠뻑 배어 있었었다고 하였습니다.

“나 혼자라도 다녀 올 것을.”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 하였습니다.

창기네 집은 큰 산의 방아골 밑에 있습니다.

산에 불을 질러 화전을 만들어 무와 배추, 콩, 옥수수, 감자 등의 곡식을 섞어 먹는 화전민이었지요.

그는 워낙 학교가 멀어서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으나 머리가 좋아 골짜기 다른 아이들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은 개울가 모래사장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별똥별 먹어 봤니?”

“아니...”

“니덜 참 불쌍하다... 별똥이 얼마나 맛있는데... 저기 저 산 중턱만 올라가면 별똥이 천지야. 얼마나 꿀지꿀지하고 맛있구나...”

저 역시 진짜 가기가 정말 싫

창기는 우리들에게 큰 잔턱에서 별똥별을 주워 먹었는데 즐겼을것이며 맛있다고 자랑을 그럴듯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내일 일요일이나 별똥 주워 먹으러 갈래?”

“그래, 그럼 우리 집까지 일찍 와, 너무 늦으면 못 먹어, 몰려져서...”

이튿날, 몇몇 아이들은 창기의 꼬임에 빠져, 아침 일찍 모여 큰 산 밑에 있는 창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함께 힘들고 먼, 산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한 창기는 산꼭대기로 올라 갈수록 별똥별이 더 많으며 계속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기가 말한 고목나무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별똥별이 없어 잘 보이는 고목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악, 뱀이다!”
저는 뛰어들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불쌍! 고목나무는 가운데가 썩어서 큰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속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꼬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기야, 민창기...”

고목나무에서 내려와 아무리 창기를 불러도 창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주눅이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겁에 질려 손발같이 출달을질하여 산을 내려왔지요.

며칠 후, 창기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너 일루 와봐! 별똥별이 어디 있다고 그래 임마! 우리는 별똥별을 주워 먹기는커녕 뱀에 물려

죽을 뻔했어! 너 그런데 어디 갔었니?”

“혁재가 몰랐습니다.”

“야, 새끼! 우리 작은아버지 댁이 큰 산 넘어 가평군 명지산 자락에 있는 논밭동인데 혼자 가기가 심심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간 거야. 하히하히...”

창기는 혼자 깔깔대며 달아났어요.

혁재는 조그만 돌을 집어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며 말했다.

“거기 서, 임마. 서지 않으면 장돌 던진다.”

“야 그만, 그만. 내가 뭐 줄게!” 창기는 백마포 크림빵 넣었던 봉지에 쌀 명석말기를 건네주었어요.

명석말기는 줄기에 가지 들성 들성 난 넝쿨달기로 아랫동네에는 잘 나지 않는 말기거든요.

우리들은 말기를 나누어 먹으며 언제 그랬느냐는 듯, 터진 배구공에 짬을 채워 넣고 운동화도 없이 맨발로 차며 고구마 내기, 딱지내기를 하며 여름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어린이 바둑기사 자웅겨뤄

의정부서초교 조용일 김대현 최인국 어린이 1위

포천시 바둑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2회 포천시 바둑협회장기쟁탈 초등학교바둑대회'가 지난 12일 포천정석바둑학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포천시바둑협회 주최하고 후원하여 경기북부 관내 20개 초등학교 6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학생 3인을 1팀으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점수기간을 거쳐 대회 당일 예선리그후 본선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결과 1위는 의정부서초등학교의 조용일, 김대현, 최인국 어린이가 2위는 포천축석초등학교의 오경래, 오경철, 심형민 어린이가

3위는 의정부청송초등학교B팀의 윤주원, 김희수, 김지원 어린이가 차지했다.

유망한 포천시바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인류의 미래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경쟁력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대회가 지난 제1회 대회와는 달리 포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대회 운영 폭이 넓어진 것이 눈길을 끌었으며, 내년 제3회 대회는 경기도 전체로 대회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바둑은 지난해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규칙'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의 중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이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06년부터는 바둑꿈나무들도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로 선발대상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에 있어 어린이 바둑인구의 저변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지난 12일 포천정석바둑학원에서 열린 '포천시 바둑협회장기쟁탈 초등학교바둑대회'가 열려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금호 건강랜드 사우나

목욕비
3,000원 대폭인하

24시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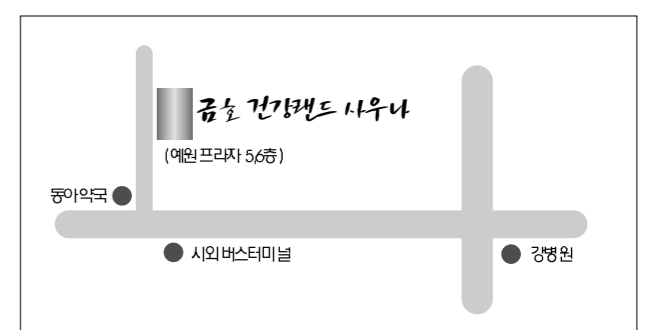
연예인 총출연 및 주부노래자랑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6층 이벤트홀에서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5층] 얼음방, 옥돌자수정불가마, 불한중막, 이용원, 급냉탕, 비취찜질방, 소금불가마

[6층] 헬스, 에어로빅, 한식당, 스넥, 골프연습장, PC방, 소금방



포천시 신읍동 43-18 에원프라자 5,6층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Tel. 031)536-7945